

“온라인 책쓰기로 코로나 이기고 창의력 키워요”

광주석산고 동아리 '위버맨쉬' 15명 소설집·소논문집·토론티즌집

10년간 동아리 활동 이어져 기획부터 편집까지 직접 완성 학교의 격려와 지원이 큰 힘

광주석산고 동아리 '위버맨쉬'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한 책쓰기 결과물인 '완벽한 학교(소설집)', '빛과 그림자(소논문집)', '토론에 취하다(토론티즌)'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책쓰기 결과물의 주인공들은 '위버맨쉬' 2학년 학생 15명이다. 이 동아리는 '초월적 인간'을 의미하는 독일어 '위버맨쉬'를 동아리명으로 정해 10여 년의 기간 동안 독서토론과 체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완벽한 학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학교와의 갈등을 겪으며 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성찰한 성장소설이

다. '완벽한 학교'는 방주성, 이정철, 하효근 군 등 3명의 학생이 공동 논의와 조연 과정을 거쳐 완성했다.

'빛과 그림자'는 의류, 법, 기술,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김민용, 박규형, 박정원, 탁현석 군 등 4명이 각각 파트를 나눠 완성한 소논문 모음집이다. 전문적·철학적인 주제 두 개에 각각 자신이 자신 있는 진로와 관련된 분야를 연결한 소주제로 구성됐다. 지식 뿐만 아니라 학생들 각각의 생각과 의견이 담겨 있다.

'토론에 취하다'는 코로나19 속 온라인 카페활동으로 이뤄진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진행한 '릴레이 토론'을 책으로 엮은 토론집이다. '위버맨쉬' 2학년 학생 15명(공동저자 김민용 외 14인, 편집 정다희 외 7인)이 공동으로 완성했다.

특히 이번 결과물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 '위버맨쉬 독서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역



동아리 '위버맨쉬' 소속 학생들이 '릴레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고등학교 독서토론 동아리와의 연계활동을 통해 완성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위버맨쉬' 2학년 대표 김민용 군은 "선배들의 꾸준한 활동을 이어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과물을 완성해 자랑스럽다"며 "학교의 격려와 지원이 큰 힘이 됐고, 창의융합적 사고역량 형성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복지시설에 방역용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신하 전남중부권지사(지사장 김선웅)는 최근 화순장애인복지회와 수덕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마스크 1500개와 생필품을 전달했다.

<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제공>

이형각 세오 대표, 장흥군에 체육진흥기금 기탁



주세오 이형각 대표가 최근 장흥군에 체육진흥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약자 보듬은 美 '진보 아이콘' 킨즈버그 대법관 별세

소수자·여권 신장에 일평생

삶 다룬 영화·다큐 등 개봉



미국 '진보진영의 아이콘'인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 연방대법관이 18일(현지시간) 향년 87세로 별세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킨즈버그는 2009년 췌장암 수술을 받았으며 2018년 폐암, 2019년 췌장암 등 총 5차례나 암과 싸웠다. 올해는 간에서 암 병변이 발견돼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었다.

킨즈버그 대법관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여성으로서서는 두번째로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후 남성 생도의 입학만 허용하던 버지니아 군사학교에 여성을 받거나 아니면 주 정부의 예산 지원을 포기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여권 신장에 힘썼다. 또한 사형제도의 제한적 허용에 찬성하며 그가 연방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적 장애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범죄자에 대해 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성소수자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소수의견으로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런 이력으로 미국에서 '진보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목스타' 같은 인기를 누렸다.

그의 삶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도 최근 몇년 새 속속 개봉했다.

킨즈버그는 지난 대선 때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사

- ◆법무부
 - ◇고위공무원 전보
 - ▲광주지방고정청장 유승만 ▲광주교도소장 유태오
 - ◇서기관 승진
 -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김병호
 - ◇서기관 전보
 - ▲광주지방고정청 총무과장 박원흠 ▲순천교도소장 박병일 ▲목포교도소장 정봉수 ▲장흥교도소장 박진홍 ▲광주지방고정청 분류센터장 허휘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종근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허덕환

순천 출신 임인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별세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초대 사장을 지낸 임인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4시1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임 전 장관은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62년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뒤 주로 상공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국립진흥청장, 상공부 차관(1988)을 거쳐 교통부 장관(1990~1992)을 지냈고, 초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

표이사 사장(1999~2001), 건설교통부 장관(2001~2003)을 지냈다. 교통부 장관 때 경부고속철도 기본노선을 선정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출범시켰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만들 때도 관여했고, 건교부 장관 시절에는 2단계 건설사업을 계획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SBS 뉴스 10 2020 US 오픈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00 모닝와이드 20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10 SBS 뉴스 30 설맞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바다 건너 사랑(재) 55 우리, 다시 호프 프롬 코리아	00 신상출시 편스토랑(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40 꿀잼 영화가 좋다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집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안방 우리말 55 UHD 숨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디큐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다큐멘터리 3일(재)	00 기분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MBC 다큐프라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0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기막힌 유산	30 퀴즈 위의 아이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줌비탐정	20 연애는 귀찮지만 외로운 건 싫어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0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30 백파터 확장판	00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나 혼자 산다 스프링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10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30 나이트 라인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싸움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7:15 출동! 슈퍼윙스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45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7:45 꼬마히어로 슈퍼액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뽀로로 동화나라	14:45 미라클러스: 레이디비그와 블랙캣	-아시아 핫 트래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45 머털도사	-삶이 만든 명소, 베트남
09:00 픽시	16:15 최고!대 호기심딱지	21:30 한국기행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당동맹 유치원(재)	<동쪽으로 튀어 1부 7번째 길 위에서>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드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20 아옹명명 귀여워2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23:50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음 8월 5일 丁卯) ☎ 010-9790-8237

<p>36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48년생 결과물이 도출되는 기쁨을 맛보겠다. 60년생 시선이 가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72년생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라. 84년생 실수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96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수박에 얹는다. 행운의 숫자 : 20, 85</p>	<p>42년생 대범하게 넘어가도 된다. 54년생 한 동안 잠잠했던 현상이 다시 시작 되면서 괴로움을 준다. 66년생 배운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78년생 행세를 뒤집을만한 신촌의 재색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90년생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될 수다. 02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97</p>
<p>37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49년생 진정시키느라고 애를 먹을 수다. 61년생 원점에서 새롭게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다. 73년생 이해관계인의 파격적인 제가 보인다. 85년생 순식간에 상호간의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이다. 97년생 혼신의 힘을 경주한다면 분명히 극복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7, 50</p>	<p>31년생 사세부득이 그렇게 됨을 알라. 43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55년생 동반하는 국세에 활로가 보인다. 67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79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91년생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2, 65</p>
<p>38년생 아주 적절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50년생 애매하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62년생 관계 때문에 어리러지고 저러지도 못 할 수다. 74년생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이 내실을 기하게 된다. 86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98년생 가까운 이와 함께 하면서 가다가 잡히겠다. 행운의 숫자 : 98, 84</p>	<p>32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44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56년생 하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68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80년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절실하다. 92년생 악순환의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끊자. 행운의 숫자 : 34, 71</p>
<p>39년생 가급적 빨리 조정하는 것이 옳다. 51년생 관계를 개선하면 예기치 못한 기회들과 접하게 된다. 63년생 표면과 내용이 모두 완벽해야 의미가 있느니라. 75년생 고경관념에 사로잡힌다면 일보도 나아가기 어렵다. 87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 99년생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75</p>	<p>33년생 내키지 않더라도 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5년생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다. 57년생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할 수도 있다. 69년생 도난 그릇에 둥근 무릎을 덮으려는 격이다. 81년생 부탁하러 갔다가 오히려 청을 듣고 오는 격이로다. 93년생 끝도 없이 계속 되면서 피로감을 더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52</p>
<p>40년생 있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 52년생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보인다. 64년생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76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다. 88년생 융통성을 발휘하여 파격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다. 00년생 상대의 장난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63</p>	<p>34년생 별 것 아니니 놀랄 것까지는 없다. 46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58년생 어지간하면 타협하는 것이 가장 낫다. 70년생 핵심보다는 부수적인 곳에 문제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82년생 서로 통하여 말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94년생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1, 95</p>
<p>41년생 머지않아 적용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임하라. 53년생 생 한꺼번에 물리는 형태이다. 65년생 집요해야 이루어질 것이니라. 77년생 오버 센스 하다가는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89년생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리라. 01년생 지극히 당연한 것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94</p>	<p>35년생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47년생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59년생 지금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71년생 깊이 성찰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후회하지 않는다. 83년생 똑같은 상황이 계속 될 전망이다. 95년생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30, 61</p>